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감춰진 린치핀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김상철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부장)¹⁾ 정병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²⁾

국문 요약

열정이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창업가, 종업원 및 스타트업의 의도와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열정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가가 극복해야 하는 노력과 도전을 고려할 때 기업가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창업 자기효능감이 이 영향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마친 스타트업 창업가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문자는 총 330명이었다. 실증 분석결과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열정은 모두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열정의 영향력은 스타트업 창업가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및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에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에는 유의한 매개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창출하는데 감춰진 핵심(lynchpin) 요인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의 열정 평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심어: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성과

I. 서론

오늘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이러한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이 64.8%, 5년 생존율이 32.1%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신생기업은 105만 9천 개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 이 같은 기업환경 속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매해 수많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의 양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1)제1저자: 경영학박사,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부장, sealuv11@naver.com

2)교신저자: 경영학박사,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gljoseph@sungkyul.ac.kr

· 투고일: 2022-03-02 · 수정일: 2022-03-17 · 게재확정일: 2022-3-23

치열한 경쟁과 가속화 하는 변화 속에서 창업가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과 생존을 추구한다. 그 성장과 생존은 기업가정신의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Newman et al., 2019). 열정은 모든 창업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격 특성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Patel, 2017), 사업 성공의 공식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특성인 열정, Grit, 회복탄력성 중의 하나이다. Steve Jobs는 Apple이 사람들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가는 제품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미션에 더 열정을 보인다. 액셀러레이터 창업가도 열정이 넘치기는 스타트업 창업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편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쉬업엔젤스의 창업가인 이택경 대표는 Daum 근무 당시에 후배 창업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매쉬업엔젤스를 창업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스타트업을 만나서 조언을 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한다(이택경 외, 2020). 이러한 열정은 액셀러레이터 매니저에게도 발견된다. 나눔엔젤스 매니저인 최예은 이사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이끌어내 성장을 가속해주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그녀는 스타트업의 띄임 시절을 함께 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액셀러레이터의 비전이라고 강조한다(머니투데이, 2017). 액셀러레이팅 과정의 핵심 참여자인 스타트업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는 핵심 가치, 미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과 보육 스타트업의 성장을 향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액셀러레이터는 최근에 창업생태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제도적 현상(Drori and Wright, 2018)임에도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Cánovas-Saiz, et al., 2020). 한국에서도 액셀러레이터가 2010년에 도입되어 조직의 생소함과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최근에 매쉬업엔젤스, 프라이머, 스파크랩에서 보육 받은 스타트업이 뛰어난 투자유치 성과를 보인다(김상철, 동학림, 2021b). 이 같은 성과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 학술적으로 조명된 적이 없다. 그간 한국에서 창업가 특성 관련한 선행연구가 창업가의 역량(김성종, 2019 ; 김종환, 2018)이나 기업가정신 위주로 연구되었고 그 밖에 Big-Five 성격 특성, 성취욕구 등 동기요인들이 다루어진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김상철, 동학림, 2021b). 그리고 한국에서 매니저에 관한 연구는 창업보육센터라는 특정 조직에 종사하는 매니저 역량 위주로 연구(배영임, 2016 ; 최강득, 김영문, 2015)되어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에 관한 선행연구도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액셀러레이터에게 보육 받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에 관해서는 최근에 연구 결과(김상철, 동학림, 2021a ; 2021b)가 제시되었다.

열정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있는 벤처 결과보다는 개인의 의도 및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의 동기, 열정, 역량 등이 개인의 의도, 행동, 만족도, 성과 등 본인에게 미치는 결과나 성과를 확인하는 내적 결과 위주로 연구(강민정 외, 2021; 윤병선, 김천규, 2019)하여 열정의 대인관계 연구(박흥진 외, 2017)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Pollack et al., 2020). Newman et al., (2021)는 선행연구의 이런 경향을 고려하여 관리자, 코치, 교사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곧 열정의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를 향후 연구 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액셀러레이터 졸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열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 열정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창업 자기효능감이 이 영향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창출하는 데 감춰진 핵심 요인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오늘날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생태계에서 널리 인식되는 창업 지원 시스템이자 프로그램이다. 이는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Pauwels et al., 2016).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역사가 짧고 설립 목적이 다양한 데서 기인한다(Cohen, 2013). 액셀러레이터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인 Cohen은 액셀러레이터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한다(Cohen, 2013). 광범위하게 말하면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초기 제품을 정의 및 구축하고, 유망한 고객 세그먼트를 식별하고, 자본 및 직원을 포함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벤처 프로세스를 가지고 집단(cohorts) 기수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한된 기간(약 3개월간)의 프로그램이다(Cohen, 2013). 이 분야 전문가인 Hochberg and Cohen은 액셀러레이터를 “교육과 멘토링으로 구성되고 demo day로 마무리하는 제한된 기간에 행해지는 기수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Cohen and Hochberg, 2014). Paul Graham은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를 설립하였다(Miller and Bound, 2011). 전 세계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는 Y Combinator 또는 Techstars로부터 핵심 기능을 가져왔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집중적인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을 비즈니스 목표로 삼고 있다(Christiansen, 2009). 이들은 엔젤투자자나 기존의 인큐베이터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어서 치열한 선발 절차를 통한다. 둘째, 개인 창업가보다는 소규모 팀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을 선호한다. 셋째, 선발은 기수별(batches)로 하고 보육 방식은 집단 단위(cohorts)로 한다. 넷째, 통상적으로 3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과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시드머니를 지급한다. 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demo day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Miller and Bound, 2011).

액셀러레이터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것처럼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도 그 구성 요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는 있다(김상철, 동학림, 2021a). 기존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물리적 자원에 대한 서비스, 사무실 지원 서비스, 자본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창업보육시스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창업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Schwartz, 2013). 이에 반해 액셀러레이터는 강력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창업기업 간의 수많은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다(Christiansen, 2009). Pauwels et al.,(2016)는 6가지로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분류하였다. 즉,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피드백 상담, 투자기회 및 시설공간이다. 신승용, 권규현(2020)는 한국 액셀러레이터 5개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각종 자료를 통해 5개사 모두가 운영 중인 보육 프로그램은 멘토링, 교육 및 세미나, 해외 프로그램(네트워크), 데모 데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교육 프로그램, 가장 차별화되는 멘토링, 네트워크와 스타트업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자 영리를 추구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초기 투자 등으로 차별화되어 운용되고 있다(김상철, 동학림, 2021a).

2.2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핵심 참여자 열정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참여자는 스타트업 창업가(대표자), 액셀러레이

터 창업가(대표자) 및 매니저이다. 그리고 관련된 참여자는 산업 전문가나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의 멘토, 동료 및 졸업 스타트업 창업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업종 전문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들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이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인적인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참여자의 열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1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창업가는 영어로 ‘entrepreneur’로 1437년에 처음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Gartner, 1990). 창업가는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열정은 창업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창업가, 직원 및 벤처의 행동과 결과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de Mol et al., 2020). 열정은 새로운 벤처를 시작할 때 기업가가 극복해야 하는 노력과 도전을 고려할 때 기업가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믿어진다(Gielnik et al., 2015). 더욱이 열정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핵심 직원을 고용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창업가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창업가 노력의 핵심 요소로서 열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해 왔다(Cardon et al., 2009; Chen et al., 2009). 열정은 사람의 재능과 관심을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행동으로 바꾸면서 지난 10년 동안 열정이라는 주제는 대중매체나 베스트셀러의 초점이 되면서 열정 연구가 빠르게 발전해왔다(Pollack et al., 2020).

창업가 열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 연구에는 세 가지 주요 흐름이 있다. 첫째, 일반적인 열정(일에 대한 열정)에 관한 연구는 열정을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한다(Baum and Locke, 2004). 둘째, 이원론적 열정 모델은 일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는 두 가지 방식(조화로운 열정과 강박적인 열정)으로 구별한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활동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성향이나 욕망으로 정의한다(Vallerand et al., 2003). 셋째, 주로 기업가정신 맥락에서 조사되는 역할 기반 열정은 창업가가 수행하는 세 가지 역할(개발, 설립 및 발명)로 구별한다. 창업가의 자아 정체성에 의미 있고 두드러지는 역할과 관련된 창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Cardon et al., 2009). Cardon et al.(2009)에 따르면 역할 기반 열정은 개발 열정(passion for developing), 설립 열정(passion for founding), 발명 열정(passion for inventing)으로 분류하였다. 개발 열정은 비즈니스 확장, 신입 사원 고용 및 신규 고객 유치와 같은 벤처 성장을 돕지만 설립 열정은 초기 벤처를 설정하고 육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발명 열정은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Cardon et al., 2009 ; 2013).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은 스타트업 대표자를 설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인이 느끼는 열정의 감정을 일반적인 열정(일에 대한 열정)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2.1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는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대표자를 의미한다. 액셀러레이터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경험과 IPO 또는 M&A를 통한 성공적인 회수 경험을 갖춘 사람이 많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보다는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조사되었다(신중경 외, 2018). 국내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인 권도균 대표는 “엑시트 자금으로 후배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 프라이머 창업했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큰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성공을 돕는 미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권도균, 2015). 권도균 대표의 인터뷰에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다. 스타트업과 빈번하게 상담하고, 멘토로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며, 초기 투자자 역할 등을 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액셀러레이터의 감춰진 핵심 Key Man이자 lynchpin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내의 55명의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및 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타트업 창업가의 열정과 정직성이 투자 결정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허주연, 2020). 이처럼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은 투자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이 연구 주제가 된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을 본인이 아닌 보육 스타트업 대표자가 느낀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그들이 경험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의 열정을 역할 기반 열정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2.3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창립 매니저는 액셀러레이터 설립 초기에는 프로그램의 일일 운영을 담당한다. 창립 매니저는 더 광범위하게, 액셀러레이터가 확립됨에 따라 더 넓은 생태계에서 핵심 lynchpin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태계 행위자인 기업, 대학 및 창업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Cohen et al., 2019). 액셀러레이터는 법률상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 창업자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가 대부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스파크랩에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심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운 이사 겸 매니저는 “좋은 팀을 발굴해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최대한 길을 헤매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고 있다”고 한다(모바일인사이드, 2020). 이들은 스타트업과 시장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으며, 기존 제품 시장성을 개선하나 시제품 시장 출시를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유사한 역할이나 실무적인 일을 하지만 다른 점은 대부분의 매니저는 외부자금 조달 업무를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매니저의 열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나 초등학교 교사 열정의 성과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매니저의 열정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동일한 역할 기반 열정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3 창업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 함은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다. 즉, 주어진 성과 내지 성취를 이루어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실보다 주관적인 감정, 동기, 행동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관련한 영역별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창업 목표 달성을 위해 맡겨진 업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본인의 믿음이 다(Chen et al., 1998). 창업 자기효능감은 자체 소유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 및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업에 대한 믿음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Hallak et al., 2015, McGee and Peterson, 2019). 한편, Newman et al.(2018)은 창업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업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선행요인과 창업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 결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창업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창업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문화와 제도적 환경, 기업의 특징, 교육, 업무 경험, 롤 모델 또는 멘토, 창업가 열정 등이며, 창업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는 창업 의도, 창업 감정, 창업 행동, 벤처 창업, 창업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은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호, 강신철, 2021).

2.4 참여자의 열정과 창업성과

2.4.1. 창업성과

창업성과 측정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식별하고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타트

업의 성공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안내하는 데 중요하다. 경영성과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 수익성과 생산성을 의미한다(김범종, 1990). 창업기업의 성과는 나타나는 형태가 다양하다. Jones et al.(2001)은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성능성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비재무성과와 재무성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투자자와 수익 발생 시점까지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Tsai et al., 1991). 스타트업 특성상 재무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정확성 또한 낮아서 이들에 대한 성과 측정은 주로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한다고 한다(Covin and Slevin, 1991). 따라서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의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lleberg and Leicht, 1991 ; 김상철, 동학림, 2021b ; 이선호 외, 2015).

스타트업의 정성적인 평가 즉, 비재무적인 관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기업의 성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마다 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는 Bound and Miller(2011)가 전통적인 성과지표(일자리 창출, 기업 생존율 등)와 함께 환경 조건 및 개인 기업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제시하였다. Roberts, I(2014)는 이 분야의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 아직 합의된 기본적인 틀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프로그램의 수,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수, 생존율, 후속 투자 여부, 직원수 등이라고 하였다. Cohen et al.(2019)는 액셀러레이터를 졸업한 스타트업이 일정 금액(\$ 500K) 이상의 투자액, 총 투자액, 최대 기업가치 평가액으로 창업성과를 측정하였다. Bone et al.(2019)는 영국 소재의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액셀러레이터의 인지도, 고용성장, 학위를 가진 직원 수의 증가, 특허, R&D 지출, 액셀러레이터 참여 이후 투자 등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보육기업이 연구대상이므로 비 재무성과로 측정하고자 한다. 비 재무성과에는 잠재적인 생존 가능성,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 Tips 지원 선정 가능성, 후속투자 가능성, 창업 성공의 자신감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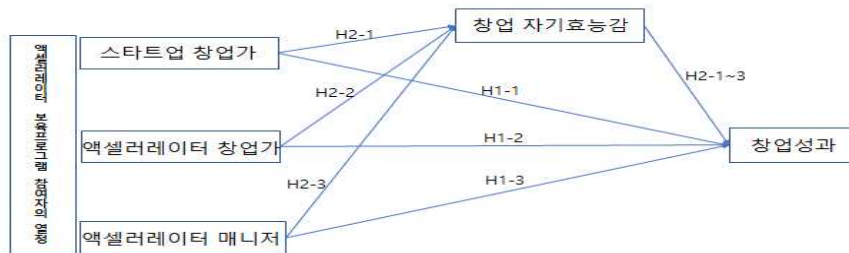
2.4.2. 참여자 열정과 창업성과의 선행연구

오랫동안 기업가의 성공 및 동기부여 요인으로 열정이 중요한 요소임이 인식되어 오고 있다(Bird, 1988; Smilor, 1997). 열정은 실패한 창업가와 성공한 창업가를 구분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Fellnhofer, 2017). 다양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일반적인 열정은 벤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Ma et al., 2017). Pollack et al.(2020)은 메타분석으로 일반적인 열정을 연구한 결과, 성과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추론에 대한 지지를 찾았다. 최근에 김상철, 동학림(2021a)은 액셀러레이터 보육을 받은 창업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성장 가능성, 생존 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의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성과를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창업가 열정은 창업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운정 외(2018)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장의 적극성과 리더십, 매니저의 적극성과 전문성은 입주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무의 적극성이 높은 센터장과 매니저는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크고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내·외부 네트워킹이 활발할수록 더 긴밀한 기업지원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례를 근거로 창업보육센터장과 매니저의 적극성이 보육 성과를 창출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보유역량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윤종록 외, 2011; 최강득, 김영문, 2014).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 즉, 스타트업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창업 자기효능감이 참여자의 열정과 창업성과 간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참여자의 열정은 크게 스타트업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3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영향가설과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가설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3.2.1 영향관계 가설

Shane et al.(2020)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을 사용하여 창업가의 피치에 대한 신경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창업가의 표시 열정의 변화가 신생 벤처에 대한 비공식 투자자의 관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그 결과, 열정이 높은 창업가는 열정이 낮은 창업가보다 투자자의 신경적인 참여가 39% 증가하고 벤처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26%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상철, 동학림(2021b)은 액셀러레이터 보육을 받은 창업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성장 가능성, 생존 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미애, 박현정(2013)은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교육 만족도는 담임교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학교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교사 수준의 변인을 통제했을 때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 역량은 학생의 학교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임(2016)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매니저 역량 수준과 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입주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니저 역량과 대부분의 지원 서비스가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Locke(2001)는 창업가의 성격 특성 및 일반적인 동기부여가 목표,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어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aum and Locke(2004)는 끈기, 열정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목표, 자기효능감, 소통된 비전을 매개하여 벤처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상철, 동학림(2021b)은 액셀러레이터 보육을 받은 창업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성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상호, 강신철(2021)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 몰입과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가설 2-1. 창업 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과 창업성과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2. 창업 자기효능감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3. 창업 자기효능감은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위해 설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9월부터 2주간 이루어졌다. 전국의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보육 스타트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345부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하고 330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할 변수들에 대한 정화과정을 거쳤다. 변수의 정화과정은 크게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시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926으로 좋게 나왔다. 아울러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 역시 6348.829로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산된 회전제곱 적재량은 71.306%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 활용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설문에서 활용된 모든 변수들이 해당 요인에 잘 묶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합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결과

| 요인 | 변수 | 요인적재치 | 회전제곱적재량(누적%) | Cronbach's α |
|------------------|------|-------|--------------|---------------------|
|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 SRP1 | .756 | 15.705 | .818 |
| | SRP2 | .806 | | |
| | SRP3 | .767 | | |
| | SRP4 | .679 | | |
| | SRP5 | .723 | | |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 ARP1 | .712 | 31.330 | .920 |
| | ARP2 | .787 | | |
| | ARP3 | .790 | | |
| | ARP4 | .719 | | |
| | ARP5 | .754 | | |
| | ARP6 | .698 | | |

| | | | | |
|---------------|------|------|--------|------|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 AMP1 | .815 | 45.512 | .950 |
| | AMP2 | .843 | | |
| | AMP3 | .833 | | |
| | AMP4 | .820 | | |
| | AMP5 | .794 | | |
| 창업 자기효능감 | ESE1 | .657 | 57.017 | .819 |
| | ESE2 | .721 | | |
| | ESE3 | .622 | | |
| | ESE4 | .679 | | |
| | ESE5 | .760 | | |
| 창업성과 | EPE1 | .775 | 71.306 | .873 |
| | EPE2 | .743 | | |
| | EPE3 | .660 | | |
| | EPE4 | .775 | | |
| | EPE5 | .755 | | |
| | EPE6 | .712 | | |

한편,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이 .8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은 .9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이들 사이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들이 기준치인 .7을 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은 모두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상관 관계 분석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8 이상이 되는 경우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경우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매니저 열정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6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평균 | 표준편차 |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 창업 자기효능감 | 창업성과 |
|---------------|-------|------|-------------|---------------|---------------|----------|------|
|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 4.419 | .622 | 1 | | | | |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 4.392 | .673 | .377** | 1 | | | |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 4.218 | .829 | .284** | .696** | 1 | | |
| 창업 자기효능감 | 4.370 | .540 | .405** | .488** | .380** | 1 | |
| 창업성과 | 4.236 | .647 | .349** | .403** | .370** | .529** | 1 |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3 영향관계 가설 검정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4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 관계

가설 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검정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F값이 32.335로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이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β값이 .226으로 P < .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1.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은 창업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β값이 .205로 P <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2.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β값이 .163으로 P <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3.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은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영향관계 가설 검정 결과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VIF | 검정 결과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1.800 | .257 | | 7.006 | .000 | | |
|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 .235 | .054 | .226 | 4.370 | .000 | 1.167 | 채택 |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 .197 | .066 | .205 | 2.966 | .003 | 2.083 | 채택 |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 .127 | .052 | .163 | 2.447 | .015 | 1.944 | 채택 |

R : .471, R제곱: .221, F값 : 32.335(p=.000)

4.4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였다. Hayes(20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4.0은 기본적으로 bootstrapping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0번을 시행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4.0의 모델 넘버 4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점 추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구간 추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검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구간 추정 방법은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즉,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면 가설을 기각한다. 반대로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설을 채택한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으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창업 자기효능감->창업성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LLCI .050, ULCI .181로 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효과는 유의하다. 가설 2-1. 창업 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과 창업성가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창업 자기효능감->창업성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LLCI .065, ULCI .203으로 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효과는 유의하다. 가설 2-2. 창업 자기효능감은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한편,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창업 자기효능감->창업성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LLCI -.015, ULCI .067로 둘 사이에 0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가설 2-3. 창업 자기효능감은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가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표 4>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검정 결과

| Path | | 회귀계수 | S.E | LLCI | ULCI | 검정 결과 |
|--|------|------|------|-------|------|-------|
|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성과 | 총효과 | .235 | .054 | .129 | .340 | 채택 |
| | 직접효과 | .130 | .052 | .028 | .232 | |
| | 간접효과 | .105 | .033 | .050 | .181 | |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성과 | 총효과 | .197 | .066 | .066 | .327 | 채택 |
| | 직접효과 | .066 | .064 | -.060 | .192 | |
| | 간접효과 | .131 | .035 | .065 | .203 | |
|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창업 자기효능감-> 창업성과 | 총효과 | .127 | .052 | .025 | .230 | 기각 |
| | 직접효과 | .107 | .048 | .012 | .202 | |
| | 간접효과 | .020 | .021 | -.015 | .067 | |

4.5 논의

첫째, 영향관계 가설 검정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된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은 모두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Pollack et al.(2020)이 직장에서 열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중 일반적인 열정(일에 대한 열정)과 성과 간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 역할 기반 열정 중 개발 열정과 발명 열정은 벤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강력한 증거와 일치하고 있다(Adomako et al., 2018; Drnovsek et al., 2016). 액셀러레이터 보육을 받은 창업가의 열정은 창업성과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다(김상철, 동학림, 2021a ; 2021b)는 것과도 일치한다. 창업보육센터장과 매니저의 적극성이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운정 외, 2018)는 주장과 유사한 결론을 보인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호화로운 열정은 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박적인 열정은 성과와 유의하지 않아 정(+)의 상관관계가 없다(Pollack et al., 2020)고 하였다. 또 역할 기반 열정 중 설립 열정은 벤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Adomako et al., 2018 ; Drnovsek et al., 2016).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업가 열정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도 창업성과와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향력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힘들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성과 여부는 최우선으로 창업가 본인의 책임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이 중요하다는 경험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확인한 점이다. 국내에서 매쉬업엔젤스, 프라이어, 스파크랩, 씨엔티테크, 나눔엔젤스, 넥스트챌린지, 비스퀘어의 창업가는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보육 스타트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창업가 열정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매니저 역량이 높게 나타나고 매니저 역량이 높을수록 입주기업의 경영성과가 높다 주장한다.(최강득 외, 2014) 곧 매니저는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스타트업 창업가나 액셀러레이터 창업가보다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 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과 창업성과 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aczmarek et al.(2016)이 EU의 기업가정신 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기 창업가 1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이 Big-Five 성격 특성과 비즈니스 성과 간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에는 유의한 매개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박상호, 강신철, (2021)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보육기업의 창업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액셀러레이터 매니저는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상대적으로 낮은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의 낮은 고용안정성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전직이나 역량 강화 등에 더 관심이 있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으로 구분하여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창업 자기효능감이 이 영향 관계 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보육 스타트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345부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하고 330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4.0과 Process Macro 4.0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 모두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에 매개역할이 확인되었지만,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과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간에는 유의한 매개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

5.1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의 핵심 참여자인 스타트업 창업가 및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3인의 열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이다. 액셀러레이터 보육을 받은 스타트업 창업가 열정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상철, 동학림, 2021a ; 2021b)가 있으나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 및 액셀러레이터 매니저 열정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동시에 살펴본 것이다. 둘째, 매개변수인 창업 자기효능감이 이 영향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한 점이다. 셋째, 열정은 전염될 수 있다(Cardon, 2008 ; Ho et al., 2021)고 한다. 관리자, 코치 또는 교사의 열정이 직원, 선수 또는 학생에게 더 열정을 갖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Newman et al., 2019).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 열정이 전염되는 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액셀러레이터 창업자 및 매니저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영감을 주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열정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창출하는 데 감춰진 핵심 요인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껏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투자받는 것이라고 한다(권용석 외, 2019). 그러나 스타트업은 투자 이상으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을 중요 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술한 책, 인터뷰 자료, 열정 평판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 열정을 역할 기반 열정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문항을 역할 기반 열정의 하부 열정인 발명 열정, 설립 열정, 개발 열정 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창업가와 매니저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비교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개인이 아닌 팀에 의해 설립되고 주도 되지만, 팀 수준보다 개인의 열정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는 많은 스타트업의 팀 기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열정의 다양성과 같이 팀 맥락에서만 작동하고 나타나는 열정의 중요한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Cardon et al., 2017). 또한 국내외에서 팀 기반 스타트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스타트업 팀 열정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높은 고용 안정성은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강득 외, 2014).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도 매니저의 고용 안정성이 보육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역량은 창업가나 매니저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열정은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 열정과 역량을 함께 창업가나 매니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볼 때가 되었다.

REFERENCE

- 강민정,이새롬,김병근(2021), “예비창업가의 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4), 71-84.
- 권도균(2015),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로고폴리스, 서울.
- 권용석,황보윤,이종훈(2019),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33-46.
- 김범종(1990), *동태적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상철,동학림(2021a),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과 창업가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1), 319-348.
- 김상철,동학림(2021b),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김성종(2019), “소기업 CEO의 역량유형별 기업성과 영향분석”, *벤처혁신연구*, 2(2), 47-64.
- 김종환(2018), “소기업 경영자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혁신연구*, 1(2), 89-107.
- 모바일인사이드(2020), 스타트업 ‘스파크랩’의 액셀러레이터 이희운 님 인터뷰 1편. 언론기사.
- 박상호,강신철(2021),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1), 71-85.
- 박흥진,한성호,김은정(2017), “프랜차이즈 기업가 열정이 기업신뢰, 일체감,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경영연구*, 8(3), 17-27.
- 배영임(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와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145-155.
- 손윤정,최종인,설명환(2018), “대학 창업생태계와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07-114.

- 신승용, 권규현(2021), “창업자의 경험 특성이 스타트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1), 185-205.
- 신중경, 박상문, 김영훈(2018), *액셀러레이터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 윤병선, 김천규(2019), “대학생의 기업가 열정이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3), 97-110.
- 이선호, 서철승, 이철규(2015), “창업자 특성이 연구개발역량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20(3), 9-26.
- 이택경, 이영민, 최항집(2020),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NAMU, Seoul.
- 윤종록, 김형철, 김호정(2011), “창업보육 매니저 역량과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90-105.
- 머니투데이(2017), ‘전화성의 어드벤처’로 유명한 액셀러레이터, 신문기사.
- 최강득, 김영문(20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이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서비스 요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8(1), 551-574.
- 최강득, 김영문, 조인석(2014),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이 창업보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82-304.
- 통계청(2021),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보도자료
- 허주연(2020),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6), 27-42.
- 홍미애, 박현정(2013),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학교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domako, S., C. Zheng and M. Ahsan(2018), “Passion Undisciplined: Exploring the Downsid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um, J. R., and E. A. Locke(2004),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to Subsequent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4), 587-59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one, J., G. U. Juanita, H. Christopher and L. Henry(2019), *The Impact of Business Accelerators and Incubators in the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Breugst, N., A. Domurath, A., H. Patzelt and A. Klaukien(2012), “Perceptions of Entrepreneurial Passion and Employees’ Commitment to Entrepreneurial Venture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6(1), 171-192.
- Cánovas-Saiz, L., I. March-Chordà and R. M. Yagüe-Perales(2020), “New Evidence on Accelerator Performance Based on Funding and Location”, *European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Economics*, 29(3), 217-234.
- Cardon, M. S(2008), “Is Passion Contagious? The Transfer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to Employe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8(2), 77-86.
- Cardon, M. S., D. A. Gregoire, C. E. Stevens and P. C. Patel(2013), “Measuring Entrepreneurial Passion: Conceptual Foundations and Scale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3), 373-396.
- Cardon, M. S., C. Post and W. R. Forster(2017), “Team Entrepreneurial Passion: Its Emergence and Influence in New Venture Tea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2(2), 283-305.

- Cardon, M. S., J. Wincent, J. Singh and M. Drnovsek(2009),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3), 511-532.
- Chen, C. C., P. G. Greene and A. Crick(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en, X. P., X. Yao and S. Kotha(2009), "Entrepreneur Passion and Preparedness in Business Plan Presentations: A Persuasion Analysis of Venture Capitalists' Funding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1), 199-214.
- Christiansen, J. D(2009), *Copying Y Combinator: A Framework for Developing Seed Accelerator Programs*, MBA Dissertation at Judge Business School and Jesus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 Cohen, S. L(2013), "What Do Accelerators Do? Insights from Incubators and Angels", *Innovations*, 8(3), 19-25.
- Cohen, S. L., C. B. Bingham and B. Hallen(2019), "The Role of Accelerator Designs in Mitigating Bounded Rationality in New Ventur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4(4), 810-854.
- Cohen, S. L. and Y. V. Hochberg(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Electronic Journal*, March, 1-16.
- Covin, J. G. and D. P. Slevin(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de Mol, E., M. S. Cardon, B. de Jong, S. N. Khapova and T. Elfring(2020), "Entrepreneurial Passion Diversity in New Venture Team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hort and Long-term Performance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4), 59-65.
- Drnovsek, M., M. S. Cardon and P. C. Patel(201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ssion on Growing Technology Venture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0(2), 194- 213.
- Drori, I. and M. Wright(2018), "Accelerators: Characteristics, Trends and the New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M. Wright. and I. Drori (Eds.), *Accelerators - Successful Venture Creation and Growth*, chapter1, 1-20.
- Fellnhöfer, K(2017), "Drivers of Innovation Success in Sustainable Business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67, 1534-1545.
- Gartner, W. B(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5-28.
- Gielnik, M. M., M. Frese, A. Kahara-Kawuki, I. W. Katono, S. Kyejjusa, M. Ngoma, et al(2015), "Action and Action-regulation in Entrepreneurship: Evaluating a Student Training for Promoting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4(1), 69-94.
- Hallak, R., G. Assaker and C. Lee, C(2015), "Tourism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The Effects of Place Identity, Self-Efficacy, and Gende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1), 36-51.
- Hayes, A. H(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Ho, V. T., S. Garg and S. G. Rogelberg(2021), "Passion Contagion at Work: Investigating Formal and Informal Social Influences on Work Pas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1(10), 36-42.
- Jones, G. K., A. Lanctot Jr, and H. J. Teegen(2001),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Impacts of External Technology Acquisi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3), 255-283.

- Kaczmarek, M. and P. Kaczmarek-Kurczak(2016), "Personality Traits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Business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Roczniki Psychologiczne*, 19(1), 121-137.
- Kalleberg, A. L. and K. T. Leicht(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MJ*, 34(1), 136-161.
- Locke, E. A(2001), "Self-set Goals and Self-efficacy as Mediators of Incentives and Personality", In M. Erez, U. Kleinbeck and H. Thierry (Eds.), *Work Motivation in the Context of a Globalizing Economy*, 13-26.
- Ma, C., J. Gu and H. Liu(2017), "Entrepreneurs' Passion and New Venture Performance in Chin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4), 1043-1068.
- McGee, J. E. and M. Peterson(2019), "The Long-Term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3), 720-737.
- Miller, P. and K. Bound(2011), *The Start-up Factories: The Rise of Accelerator Programs to Support New Technology Ventures*, Rome, Nesta.
- Murnieks, C. Y., E. Mosakowski and M. S. Cardon(2014), "Pathways of Passion: Identity Centrality, Passion, and Behavior Among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40(6), 1583-1606.
- Newman, A., M. Obschonka, S. Schwarz, M. Cohen and I. Nielsen(2018),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Part B), 403-419.
- Newman, A., M. Obschonka, J. Moeller and G. G. Chandan(2021), "Entrepreneurial Passion: A Review, Synthesis,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Applied Psychology*, 70(2), 816-860.
- Patel, S.(2017), "The 5 Personality Traits All Entrepreneurs Must Have", Entrepreneur Asia Pacific.
- Pauwels, C., B. Clarysse, M. Wright and J. Van Hove(2016), "Understanding a New Generation Incubation Model: the Accelerator", *Technovation*, 50-51, 13-24.
- Pollack, J. M., V. T. Ho, E. H. O'Boyle and B. L. Kirkman(2020), "Passion at Work: A Meta-analysis of Individual Work Outcom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1(4), 311-331.
- Roberts, I(2014), *Startup Accelerator Programmes : A Practice Guide*, Nesta.
- Schwartz, M(2013), "A Control Group Study of Incubators' Impact to Promote Firm Survival",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8(3), 302-331.
- Shane, S., W. Drover, D. Clingingsmith and M. Cerf(2020), "Founder Passion, Neural Engagement and Informal Investor Interest in Startup Pitches: An fMRI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4), 105949.
- Smilor, R. W(1997), "Entrepreneurship: Reflections on a Subversive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5), 341-346.
- Tsai, W. M-H., I. C. MacMillan and M. B. Low(1991), "Effects of Strategy and Environment on Corporate Venture Success in Industrial Marke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1), 9-28.
- Vallerand, R. J., C. Blanchard, G. A. Mageau, R. Koestner, C. Ratelle, M. Leonard, M. Gagne, and J. Marsolais(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The Hidden Lynchpin of Startup Accelerators : Accelerator Entrepreneur Passion

Kim, Sang-cheol¹⁾
Chung, Byoung-gyu²⁾

Abstract

There is growing empirical evidence that passion is an important part of entrepreneurship and influences the intentions, behaviors and performance of entrepreneurs, employees and startups. Pa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an entrepreneurial context, given the effort and challenge that entrepreneurs starting a startup must over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assion of startup entrepreneurs participating in the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and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managers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In addition, we tried to confirm wheth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is influence relationship.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by startups entrepreneur who completed the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A total of 33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assion of startup entrepreneurs and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managers all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The influence of passion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startup entrepreneurs,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accelerator managers.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passion of startup entrepreneurs,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respectively. However, no significant mediating role was identified between the passion of accelerator managers and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mpirically confirming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manag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and manager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hidden lynchpin in creating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In particular, since the passion of accelerator entrepreneur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incubator startup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is fact and carefully examine their passion reputation when startups select accelerators.

Keyword: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startup entrepreneur passion, accelerator entrepreneur passion, accelerator manager pass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performance

1)First Author, Director, Investment Finance Center,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ealuv11@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of Sungkyul University, gljoseph@sungkyul.ac.kr

저 자 소 개

- 김상철(Kim, Sang-cheol)
 -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부장, 경영학 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신용분석사
 - 스타트업 멘토, 카이스트 경영대학 멘토, 공공기관 평가위원
- <관심분야> :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멘토링, (재)창업, 혁신 플랫폼 비즈니스, 뷰티산업

교 신 저 자 소 개

- 정 병 규(Chung, Byoung-gyu)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빅데이터 전문가 1급, SNS 마케팅전문가 1급, 진로 적성 상담사 1급, 진로 직업 상담사 1급, 창업상권 분석지도사 1급 등
 - NIPA, IIT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차산업관련 평가위원
- 저서 : <메타버스를 타다, 2021>, <한방에 통과하는 논문 쓰기, 2021>, <2022 이기적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입문서, 2022> 등
- <관심분야> : ICT전략 및 마케팅, AR/VR 및 Metaverse, Bigdata,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